

현장연구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 지도사례

전 영 희

충북 청원군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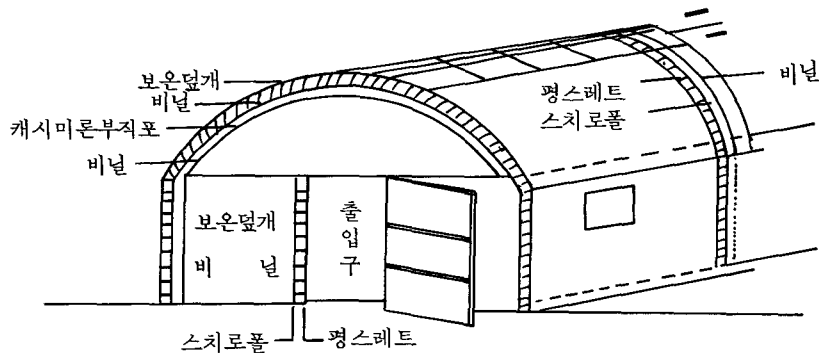
영농의 과학화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가 점차 증가하여 89년 현재 비닐하우스 면적은 22,220ha이며 충북도 91년 현재 486.3ha에 이르고 있다.

비닐하우스 내의 농작업은 연중작업으로 1일 작업시간이 연장되어 과로하기 쉬우며, 하우스 내의 온도차가 크고 밀폐공간 내의 공기오염이 심하며, 협소한 공간 내에서의 작업으로 요통, 두통, 현기증, 피로감을 유발한다. 따라서 농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모형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여 92년도에 10개소에 보급하였다.

이러한 휴게실을 설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휴게실 설치 반응을 분석해 본 결과 휴게실 설치의 필요는 휴식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70%), 휴게실 규모는 9~10평이 65%, 8평이하가 20%로 대부분 중·소형을 희망하고 있었다. 휴게실을 설치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단열 및 창문이 35%, 내부시설 30%, 자재구입이 20%이며, 현재 설치한 휴게실의 작업환경은 95%가 적당하다고 만족하였으며 휴게실의 활용도는 80%가 매우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휴게실을 취사 및 식사장소로 이용하는 농가가 40%, 휴식장소 25%, 작업장 20%, 샤워 및 탈의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10%였다.

〈충북형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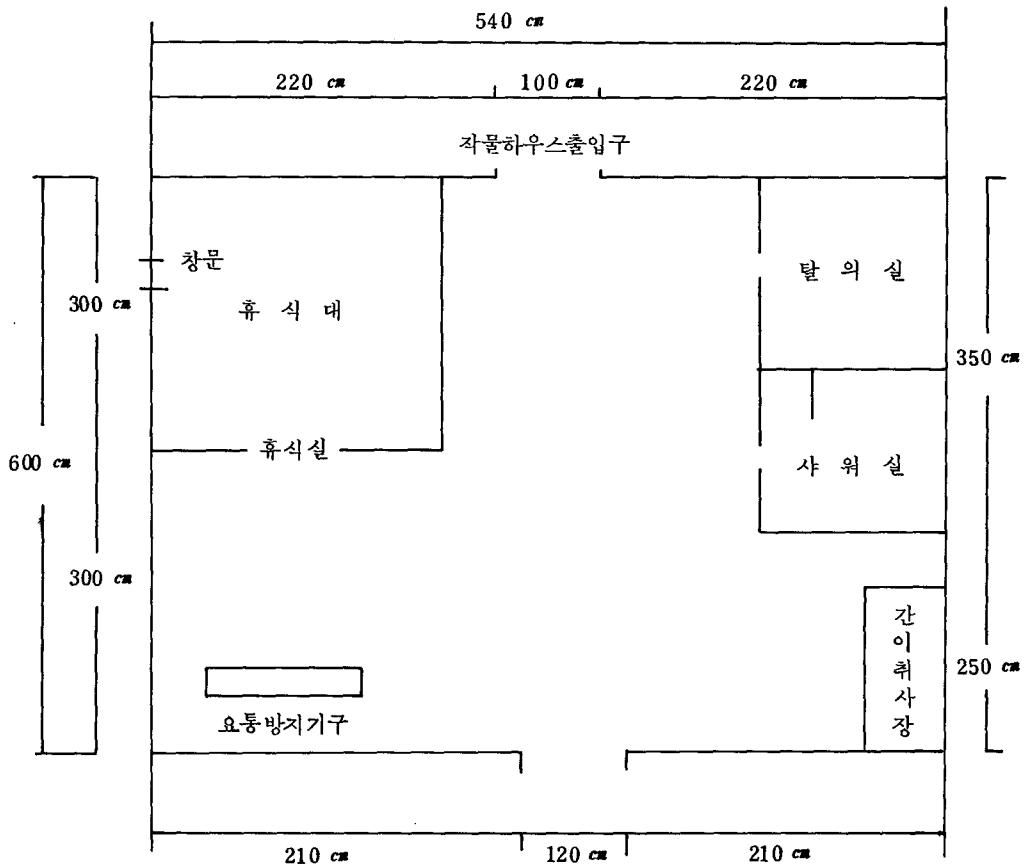
○ 입체도



* 편집자 주 : 본 현장연구는 1993년 7월 6-7일 농작업환경개선 발전방향 연찬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편집 위원회에서 정리함

전 영 회

○ 배치도(540cm×600cm)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을 설치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은 휴게실 실내온도를 중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열자재구입이 곤란하고, 부직포로 보온자재를 쓸 경우 채광이 불량하며, 하우스 위치가 농가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여 종합시설이 요구되거나 시설이 곤란하며, 작물하우스와 휴게실과의 공간이 없어 단열효과가 저조하며, 현 타이어를 이용한 요통방지기구의 인식부족 및 활용도가 미흡하고, 탈의실이 작업실이나 창고로 이용되는 것 등이다.

앞으로 보다 나은 휴게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1. 하우스 형태와 휴게실 구조에 맞는 단열재 개발

2. 다양한 하우스 형태에 맞는 휴게실 모형개발
3. 카시미톤 부직포 사용으로 채광 및 보온 해결
4. 휴식, 작물정리, 취사를 위한 종합시설 개발
5. 환기창 및 내화재 시설
6. 작물하우스와 휴게실과의 사이에 1m정도의 중간실 설치
7. 이중문 설치로 단열효과 증진
8. 요통방지기구 설치 목적 및 사용법에 대한 지속적 교육
9. 자체 건강관리기구 비치 활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